지구 온난화로 겨울이 짧아지면서 봄꽃이 피는 시기가 20년 사이 최대 한 달 가까이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광양시 다압면 청매실농원에 만개한 매화, 구례군 산동면에 활짝 핀 산수유 군락. /나명주·김진수기자 mjna@

봄꽃 개화 20년새 한달 빨라졌다

지구온난화 기온상승 등 영향
광주·전남은 10일 빨리 피어

지구 온난화로 겨울이 짧아지면서 봄꽃이 피는 시기가 20년 사이 최대 한 달 가까이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길게는 10일정도 개화시기가 빨라졌다.

27일 기상청이 1981~2010년 주요 도시의 봄꽃 개화시기를 분석한 결과, 2000년대 광주에서 벚꽃·매화·개나리가 피는 시기가 1980년대에 비해 평균 8일 앞당겨졌다. 매화는 1990년대 평균 3월11일 개화했지만 2000년대에는 평균 3월5일로 6일가량 일찍 꽃을 피웠다.

벚꽃은 4월4일에서 3월26일로 20년 사이 9일이 빨라졌고 개나리는 3월16일에서 3월7일로 9일 당겨졌다.

우리나라에서 봄꽃이 가장 먼저 피는 서귀포는 평균 14.3일로 변화 폭이 가장 컸다. 매화가 3월16일에서 2월15일로 29일 빨라졌고 벚꽃과 개나리도 각각 5일과 9일 일찍 개화했다.

바다와 접해있는 목포는 매화의 경우 3일 앞당겨졌고, 개나리는 2일 개화시기가 앞당겨졌다. 위도가 높고 비교적 추운 지역인 춘천은 벚꽃 4일, 매화 7일, 개나리가 1일 일찍 꽃을 피웠다.

봄꽃이 점점 일찍 피는 이유로는 개화시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2월부터 3월간 기온 상승을 들 수 있다. 온대 낙엽수목의 꽃눈의 '내생휴면상태(살아있지만 생육이 정지된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일정기간(가을~겨울) 동안 저온이 이어진 후, 2월과 3월(봄) 고온 상태가 유지되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국내 10대 도시의 2월 평균기온은 1980년대 1.2도에서 2000년대 3.0도로 1.8도나 높아지는 등 평균 기온이 상승했고, 3월 역시 같은 기간 6.2도에서 7.2도로 1.0도 올랐다. 일 년 가운데 2월 기온이 가장 크게 뛰었고 3월은 세 번째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2~3월의 평균 기온은 변동이 심해 꽃이 피는 시기도 제각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봄꽃의 평균 개화시기가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는 평년과 비슷한 3월 말께 광주지역 벚꽃의 개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다음 '봄꽃 개화지도' 모바일 서비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전국의 봄꽃 개화시기와 꽃놀이 명소를 쉽게 확인하고 추천도 받을 수 있는 '2013 봄꽃 개화지도'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다음 앱과 모바일 웹(http : //m.map.daum.net/actions/flowerBloom)에서 벚꽃·진달래·개나리 등 꽃의 종류에 따른 개화시기 지도를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쌍계사(화개장터 벚꽃축제)와 제주대사거리(제주왕벚꽃축제), 진해벚꽃터널(진해 군항제)을 비롯해 전국의 꽃놀이 명소 120여곳의 개화시기와 위치를 찾아볼 수 있으며, 봄꽃 축제의 일정, 장소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정렬기자 halo@

'1일 광주시장' 나선 김범일 대구시장

"광주 행정 전략 벤치마킹 하겠다"

광주-대구간 협력사업 추진
'치과벨트' 구축 논의 약속
5·18기념식 참석 적극 검토

27일 '1일 광주시장'으로 나선 김범일(63) 대구시장은 대표적인 엘리트 행정가 출신 광역자치단체장이다. 경북고와 서울대(1973년 졸업)를 거쳐 행정고시(12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김 시장은 대통령비서실 행정비서관과 행자부 기획관리실장, 산림청장 등을 역임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인연도 깊다. 김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 시장께서 저보다 대학(서울대)과 고시(행정고시), 공직사회 모두 한 단계 빠른 선배다"면서 "공직시절부터 강 선배의 청렴한 모습과 일에 대한 열정을 존경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1일 교류근무에 나선 것도 이런 인연이 큰 역할을 했다. 다음은 김 시장과의 일문 일답.

-1일 광주시장을 지낸 소감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운태 시장의 역동적인 시정운영 확인할 수 있었다. 배울 점이 너무 많아 메모했다. 광주의 기업유치, 수출실적 향상 등 전국 최고의 행정 전략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보내 벤치마킹하도록 하겠다.

-'달빛동맹' 사업의 연속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일단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조만간 광주와 대구간의 메가톤급 협력 사업을 개발해 추진하겠다. 내년쯤 이러한 사업에 대해 양쪽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달빛동맹은 명분이나 실익면에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연속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군 공항 이전 문제도 해결할 과제가 많은데.

▲재원조달과 이전 후보지가 가장 큰 문제다. 광주와 대구, 수원의 정치권과 행정이 연합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미래형 치과산업 벨트 구축과 관련해 충북 오송과 연대하려 한다는 설이 있는데.

▲혹시 실무 차원에서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반드시 광주와 연대해 치과벨트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약속한다.

-국립과학관 운영비의 국비 지원 문제를 놓고 광주와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애초 광주와 연대해 국립과학관인 만큼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해 왔다. 정부에서도 운영비의 부담비율을 6대 4로 했다가 8대2까지 양보했다.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대구에서는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광주는 전액 국비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광주와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여할 생각은 없는지.

▲오전에 열린 광주지역 인사들과의 간담회 도중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5·18 기념식 참석을 요청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1일 교류근무처럼 2·28대구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광주시장이 참여하고, 5·18 기념식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보겠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친환경농업' 고소득에 젊어진 전남 농민

50대 이하 친환경 농가 62.5%·일반 농가 29.4%

전남도 역점 사업인 친환경 농업이 50대 이하 청·장년들의 농촌행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농법보다 소득이 높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반면, 친환경 농산물 가운데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산물 비율이 낮아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남도청 정철실에서 전남발전연구원(원장 이건철) 주최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세미나에서 한국은행 목포본부 박지섭 과장은 지역농업인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남 친환경농업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 박 과장은 "지난해 8월 지역 1019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남 전체 농가 중 50대 이하는 29.4%인 반면, 친환경 농가 중 50대 이하는 62.5%에 달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친환경농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소득향상과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대답했다. 또 농사 경력 10년 미만 농가 중 나이가 50대 이하인 농가 비중은 47%로 전국(40.1%)에 비해 높았다.

친환경 농업을 통해 소득을 높인 뒤 젊은 귀농 인구를 늘리겠다는 전남도의 중장기 계획이 주효한 셈이다.

실제 농가 부채도 전남은 지난 2003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지만, 지난 2011년 크게 줄어 가장 빚이 적은 고장이 됐다. 2011년 전국 농가 소득은 가구당 평균 3014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98만원이 줄었지만 전남은 전년보다 280만원이 증가한 3043만원을 벌어들였다. 부채도 1671만원으로 전년 대비 350만원이 줄었다.

친환경 농업은 넘어야 할 산도 많았다. 세계 유기농 시장은 지난 2000년 179억달러 수준이었지만 지난 2009년 549억원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전남 친환경 농산물(53만t) 중 유기농산물(2.9만t)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그쳤다. 전국 유기농 산물 생산 비중 11.2%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친환경 농업의 최상 단계인 유기농법의 경우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 품종 다양화, 생산기술과 영농자재 공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내달 초 亞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공개

문화중심도시조성위 1일 전체회의·2일 국제컨퍼런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 전체회의와 '아시아 문화전당 국제컨퍼런스'가 다음달 초에 잇따라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2015년에 문을 열게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전시·공연 등 개관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조성위원회(위원장 지건길)가 광주 서구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다. 지난해 말 제5기 조성위가 출범한 이래 공식적으로 열리는 첫 회의다.

조성위는 아시아문화개발원(원장 이영철)으로부터 문화전당 5개원(민주평화교류원·어린이문화원·창조원·정보원·아시아예술극장)의 핵심 운영 프로그램을 보고 받는다. 조성위는 이어 총 사업비 5조3000억원에 달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013 아시아문화전당 국제컨퍼런스'는 '지식의 야생정원-새로운 사회를 위한 아시아 문화의 가능성'을 주제로 2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베른트 쉐러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총감독, 앤서니 샐턴 브리티시 콜롬비아대 인류학과 교수 등 해외 공연예술계 인사 10여명이 참석, 주제발표와 토론 시간을 갖는다.

이영철 아시아문화개발원장은 행사에서 문화전당의 개관콘텐츠를 공개하고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6년부터 신분증만으로 전국서 여권신청 가능

외교부는 영사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신분증만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201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 등에서만 가능하다.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또 해외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대국민 영사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시행중인 '월드 프렌즈 코리아(WFK)'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평균 4000명 정도인 해외 파견 봉사단 규모를 5000명 수준으로 늘려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두 2만5000명의 청년들을 파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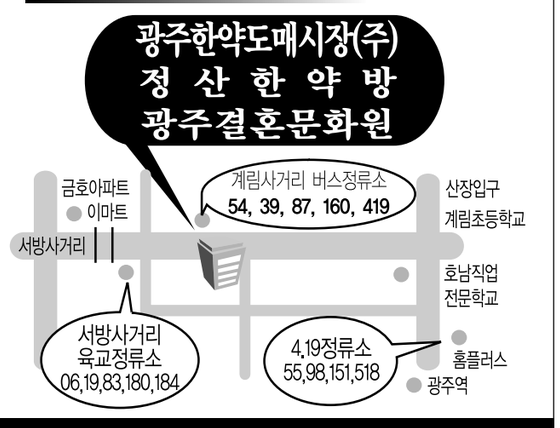
/연합뉴스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 산 한 약 방

한약 · 국산 · 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독활(땅두릅)묘목 분양

이전약도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553-14
062)223-3399 / 223-6664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

서울에서 난리가 난 대박사업!
저렴한 가맹비 및 창업비!
2-3평 소형으로도 창업가능!
조리가 필요없는 단순진열판매!

1호점 슈니팡 충장로점(광주우체국앞)
3월 22일(금)14시

2호점 메가박스 광주점 — 4월 5일(금)14시
3호점 전남대점 — 4월 19일
4호점 전남 순천점 — 4월 20일
5호점 전남 함평점 — 4월 26일
6호점 광주 상무점 — 5월 3일
7호점 광주 수완점 —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주)슈니팡코리아
광주 · 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

사 원 모 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조리사 0명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면접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충원시까지(충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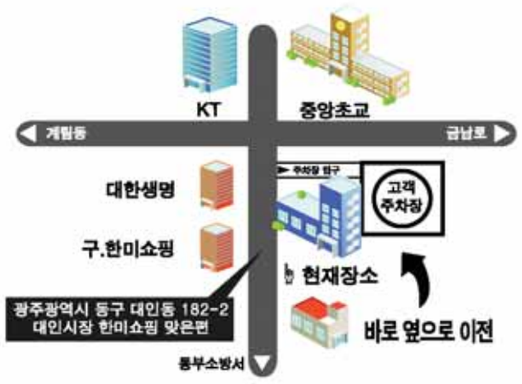
접 수 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식음료팀 이상욱 팀장
- 전 화 : 061-320-7799
- 이메일 : guy0818@hanmail.net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130-광-26%호.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